WP "美, 북한과 양자 협상 용의"

17일 북한대사관에서 회담을 마친 후 김계관 부상(사진 위 모여 있는 사람중 맨 오른쪽)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29일 뉴욕서 BDA 협의…힐, 19일 한국 방문

힐-김계관 이틀째 베를린 회동…금융해제 집중 논의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베를린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이틀간의 회담을 마친 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협상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7일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힐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양자 논의 가능성을 미국 관리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는 베이징 공동 성명을 도출했던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 당시에도 이론이 있었으며, 당시 미국 대표단은 성명서 최종안의 관계 정상화 관련 부분에서 굳이 '대화'라는 단어를 삭제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와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 부상은 17일 오후 베를린에서 이틀째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두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부터 북한대사관에서 1시간 30여분간 만나 차기 6자회담 재개 및 차기 회담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회담에선 또 6자회담 재개의 장애물로 지적돼온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관측했다.

힐 차관보는 베를린 방문에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며 순방기간에 베를린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차기 6자회담 및 금융제재 실무회담 계획이나 전망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요구해온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 북한과 미국 양측의 실무자급 회담이 오는 29일 뉴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미국은 북한측에 BDA 사안의 복잡성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며, 동결된 2,400만 달러를 지금 시점에 모두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요코 이야기는 허구' 기록 발견

731 부대 철수 때 한국인들 친절, 물 건네 줘

요코 아버지는 731 부대 최고위 간부 의혹도

일제 말기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상대로 강간 등의 만행을 자행했다는 '요코이야기'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제 731부대원 2천명과 가족 등 수 천 명이 일본 패전 직전 열차를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발견돼 주목된다.

미국 도서관에 남아 있는 이 기록은 요코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가족의 철수상황과 매우 비슷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물을 건네는 등 친절하게 대했으며 적대행위를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인간 생체실험 등으로 악명을 떨친 731부대의 창설자인 이시이 시로의 딸 하루미가 1982년 '재팬 타임스'에 두차례에 걸쳐 기고한 글에 따르면 731부대원과 노인, 여자, 어린이 등 가족 2천여명은 1945년 8월 11일 오후 3시 15량의 화물차에 나눠타고 이 부대가 있던 만주의 핑팡을 출발했다.

이 열차는 하얼빈과 장춘에 이어 한반도 동부를 거쳐 부산에 도착했으며,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마이즈루로 건너갔다. 마이즈루는 '요코이야기'에서 요코의 세 모녀가 도착한 항구이다.

또 만주에서 한반도 동부를 연결하는 철도는 나남과 단천, 원산을 지나 부산에 이르기 때문에 '요코이야기'에 나오는 나남을 틀림없이 통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열차는 북한 지역에서 잠시 멈춰서 일부 사람들이 타고 내렸던 것으로 나타나 이곳이 나남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열차가 도착하는 역에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 헌병들이 배치됐으며, 일본인들이 한국인으로부터 적대행위나 괴롭힘을 당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하루미는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물을 건네는 등 도움을 주려 했으나 일본인들은 독약을 탔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마시길 꺼렸다고 하루미는 적었다. /보스턴·뉴욕=연합뉴스

北 에너지 갈등…총리 근신·각료 경질

북한에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박봉주 내각 총리가 사실상 근신처분을 받고 주동일 전기석탄공업상은 경질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주 공업상은 지난해 봄께 에너지 관계자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은 매우 어렵다"며 "장군님 초대소의 전기를 당겨쓰면 어떨까"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북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별장으로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이를 기업과 일반주택으로 돌리자고 제안한 셈이다.

주 공업상은 "국내의 전기 사정이 마비된 상황을 표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규탄을 받은 끝에 사실상 경질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비아그라 과다 복용시

'후각' 능력 상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한 번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복용하면 냄새를 맡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코막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연구자들이 '비뇨기학 저널' 최신호에 보고했다.

독일 드레스덴 의대 연구팀은 건강한 남성 자원자 20명에게 50mg이나 100mg의 비아그라 또는 위약을 투여하고 냄새를 뿌리는 장치에 이들을 노출시켰다.

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최소 감지 농도와 냄새 구별능력, 냄새 확인 능력을 수치로 측정했다.

그 결과 100mg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보다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졌으며 특히 냄새 구별 능력이 떨어지고 최저 감지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심판의 날 시계' 자정 5분전!

북·이란 핵 야욕이 2분 앞당겨

핵전쟁에 따른 인류 최후의 날을 상징하는 '심판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17일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 등 핵전쟁 위협 증가를 감안해 자정에 더 가깝게 앞당겨졌다.

이 시계를 관장하는 핵과학자회보(BAS) 과학자들은 이날 워싱턴과 런던에서 동시 발표를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로 '핵겨울'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시카고대학 소재 심판의 시계를 오후 11시53분에서 11시55분으로 자정에 2분 앞당겼다.

이들 과학자들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이란의 핵개발 야망, 핵무기의 군사적 용도에 관한 의존도 증가, 미국과 러시아 등에 산재하고 있는 2만6천개의 핵무기 등이 핵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심판의 시계를 앞당긴 배경을 설명했다.

2002년 2월에 조정된 이 시간은 미국 원폭계획 추진 핵 과학자그룹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미 시카고 대학 내에 이 시계가 처음 설치됐던 1947년도와 같은 시간이며 20여년전 냉전 당시보다 더 자정에 가깝다. /워싱턴=연합뉴스

아베 정권 벌써 '레임덕'

지지율 급락…후임론 솔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후임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취임 4개월도 안돼 마치 '레임덕'에 빠진 모습이다.

취임 당시 전후 역대 총리로는 3번째로 높은 지지율 속에 내각을 출범시킨 아베 총리는 자민당 탈당의원들의 복당 파문과 행정개혁상 경질, 각료들의 정치자금 의혹 등 악재가 겹친데다 당초 기대했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운명이 걸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 '얼굴'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당안팎에서 새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리에 관한 얘기들이 버젓이 나돌고 있다. '포스트 아베'를 노린 당내 각계파간의 합종연횡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막판에 출마를 접었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에다 아베 총리와 끝까지 겨뤘던 다니가키 사타카즈 전 재무상, 아소 다로 현 외상 등이 차기 총리와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학·생·체·벌 日 허용 검토

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것을 '체벌'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변경, 일부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수업 방해 등에 교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스팸메일 죗값은 징역 101년형?

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이 마치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송된 것처럼 꾸민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기법을 사용한 한 미국인이 최고 징역 101년 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은 17일 용의자인 제프리 브레트 구딘(45)이 지난 2003년 제정된 스팸메일 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기소 과정에서 최초로 스팸메일 방지법이 적용된 사례다.

이 법은 이메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거짓이거나 오도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